

〈周生傳〉의 미학과 그 의미

이 종 뮤

1. 문제 제기

『주생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작품론과 소설사적 위상 정립이라는 두 견지에서 이루어져 왔다.¹⁾ 『주생전』이 소설사적으로 『金鰲新話』를 잇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후대 기생이 등장하는 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본고는 저간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주생전』의 미학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작품론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주생의 애정 행각이 전기성이나 우연성을 띠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남녀관계의 현실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²⁾, 최근의 한 연구는 기생이 등장하는 애정소설의 사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생전』은 소외되어 가는 지식인층에 의해 현실 사회의 질곡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하였다.³⁾ 이 논문은 『주생전』의 현실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펼치면서 『주생전』이 『춘향전』과 같은 민중적 사실주의 계열로 가는 매개적 작품으로서의 의미와, 『구운동』을 거쳐 통속소설로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작품

1) 『주생전』에 대한 연구는 文藝奎 역주, 『花史·周生傳·鼠大州傳』(통문관, 1961)에서 개판이 이루어졌고 이후, 金一烈, <주생전의 작품세계와 비극적 성격>『조선조 소설의 의미와 구조』(형설출판사, 1984), 蘇在英, <石洲 樓輝小論>『충전대 논문집』(인문사회 6, 1976), 王淑誼, <주생전의 비교문학적 연구>(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6), 朴逸勇, <주생전>『玩巖金鎮世先生回甲紀念論文集 韓國古典小說作品論』(침문당, 1990) 등이 대표적이다.

2) 김일열, 앞 논문.

3) 박일용, 앞 논문.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복합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거시적으로 소설사의 흐름을 조명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앞서 『주생전』을 읽는 재미와 『九雲夢』을 읽는 재미, 그리고 『춘향전』을 읽는 재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소설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만큼 소설사적 위상의 정립에 치중하여 어느 특정 작품의 미학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김일열이 『주생전』의 비극적 성격을 논한 것은 의미가 깊다 하겠다. 이 논문은 작품의 구조적인 성격을 규명하면서도 분위기의 효과까지 분석하여 작품의 비극적 성격을 총체적으로 밝혔다.⁴⁾ 본고는 이러한 제반 논의를 업고 『주생전』을 읽는 재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작품의 미학은 형이상학적인 논의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작품이 어떠한 성격 때문에 독자의 관심사가 될 수 있었는가의 규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는 작자가 작품을 어떻게 구성하였는가라는 창작 방법에 대한 규명과 맞물려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작자의 작품 구성 원리를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생전』의 작자와 제작의 배경 등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논의는 『주생전』의 작자를 권필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고증이 필요한 듯하다. 이와 함께 작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작품을 지었는가를 작자의 다른 글들과 함께 살펴도록 하겠다. 이어서 ‘시로서 읽는 소설’⁵⁾이라는 관점에서 『주생전』의 미학을 살피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

2. 작자 고증과 창작 배경

잘 알려진 대로 『주생전』의 작자가 권필로 명기되기 시작한 것은 李明善의 『朝鮮文學史』 연표에서부터이지만 구체적 증거는 전혀 없다. 『주

4) 김일열, 앞 논문.

5) 閔丙秀는 <漢文 小說의 捕入詩에 대하여>『韓國古典散文研究』(동화문화사, 1981)에서 한문소설의 삽입시를 ‘詩小說’를 규정한 바 있다.

생전》이 권필의 소작임을 밝힌 작업은 王淑誼⁶⁾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한국 문인이 짓기 어려운 詞가 『주생전』의 내부에 여러 편 삽입되어 있는데 권필은 보기 드문 詞의 작가였다는 점, 작품의 시대 배경이 권필의 생애와 일치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送婁鳳鳴還杭州錢塘縣〉이라는 율시 작품에서 婁鳳鳴이 錢塘人인데 이는 주생의 고향과 일치하여 婁鳳鳴이 곧 주생의 본명일 것이라는 추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증거 중에 婁鳳鳴에 대한 기사는 좀더 치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水接吳天闊	하늘은 오의 하늘과 접해 넓고
山從越地分	산은 월 땅을 쪼아 나누었도다
婁霞靈隱寺	구름과 노을 속의 영은사
花月湧金門	꽃과 달 아래의 용금문
形勝中原最	경관은 중원의 제일이요
繁華外國聞	번화는 나라 밖까지 들렸도다
平生勞夢想	평소몽상에 번거롭더니
送爾更消魂	그대 보냄에 다시 넋이 녹누나

(『石洲集』권 3)

여기서 王淑誼가 지적한 대로 권필은 婁鳳鳴이라는 錢塘 사람을 보내면서 시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권필이 전송한 전당인 婁鳳鳴이 과연 주생일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王淑誼는 『주생전』의 말미에서 주생이 '余'에게 주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婁鳳鳴의 가명으로 주생이란 이름을 썼다고 하였다. 이 추정은 타당한 듯하다. 왜냐하면 작품에 등장하는 湧金門이 현재의 공구서에 보이지 않는 매우 궁벽한 지명인데, 용금문은 바로 『주생전』에서 선화의 집 근처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필이 婁鳳鳴으로부터 용금문 등 전당 지방의 명소를 듣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곳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권필은 婁鳳鳴에게 婁鳳鳴의 또 다른 이름인 주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1595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⁷⁾ 다음 시는 주생에게 들은俳桃의 죽음을 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목

6) 王淑誼, 앞 논문.

7) 『石洲集』권 3에 실려 있는 이 시 바로 앞에 실려 있는 〈夢中作〉의 제작 연대가 1595년 경인 것으로 보아 이 시도 그 즈음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되는 작품이다.

玉骨埋靈鎖	백옥같던 뼈 신선의 궁에 묻었고
金爐龍夕薰	금 화로의 향기는 저녁 연기에 흩어진다
柳藏蘇小宅	버들은 蘇小의 집을 감추었고
花繞薛濤墳	꽃은 薛濤의 무덤을 둘렀다
一夢秦樓月	秦의 누각의 달도 한갓 꿈이요
孤魂楚峽雲	楚 巫峽의 구름에 외로운 영혼 떠돈다
年年大堤草	해마다 긴 제방의 풀만이
空學舞時裙	부질없이 춤추던 치마처럼 혼들린다

『석주집』 권 3

〈悼妓〉로 제목되어 있는 이 작품은 어느 기생의 죽음을 달하고 있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전고로 활용되고 있는 蘇小와 薛濤는 모두 유명한 詩妓이다. 특히 소소는 전당의 명기인데 『주생전』에서 배도의 고향이 바로 전당이다. 또 “秦의 누각의 달도 한갓 꿈이요, 楚 巫峽의 구름에 외로운 영혼 떠돈다”라는 구절은 배도와 주생의 애정을 우회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생각된다.⁸⁾ 비슷한 구절이 仙花의 편지에 “三魂已鎖”, “縱懷雨行之芳心”이나, 주생의 편지에 “雁叫吳雲 猿啼楚岫”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동일인의 제작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한 징표이다. 따라서 이 시 역시 『주생전』의 작자가 권필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시 『주생전』 말미의 기록을 보자.

다음 해인 癸巳年 봄에 明軍이 왜적을 대파하고 경상도로 몰아갔다. 주생은 선화를 생각한 나머지 드디어 깊은 병을 얻어 종군하여 남하하지 못하고 개성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나는 마침 일이 있어 개성에 갔다가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 글로 통정하였다. 주생은 내가 글을 알아 대우를 잘 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병이 난 사연을 물어 보았으나 수심에 어린 얼굴로

8) 秦樓는 秦 穂公의 딸 弄玉이 남편 蕭史와 함께 피리를 불며 놀던 누각인데, 후에 남녀의 정사를 다룬 曲 〈秦樓月〉이 나올 만큼 남녀의 애정과 유관하게 쓰이는 고사이다. 楚峽雲은 宋玉의 〈高唐賦〉에 나오는 巫山 仙女와의 情事を 비유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시에 등장하는 기생은 한 남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죽게 된 인물로 간주할 수 있어 배도의 생애와 유사하다. 이 구절은 沈約의 〈脩竹彈甘蕉文〉의 “巫岫敘雲 秦樓開照”에서 따온 것이다.

대 담치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는 등을 돌우고 저녁토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답사행〉 한 수를 지어 나에게 보였다.……나는 재삼 이사를 옮조리고 사 중의 일을 문자 주생은 이에 더 감추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주고 절대 남에게 이를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나는 그 시와 사를 곱다 여기고 그들의 기이한 만남을 한탄하고 좋은 때를 슬퍼 여겼다. 헤어져나와 봇을 들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明年癸巳春天兵大破倭敵追之慶尙道生念仙花不置遂成沈痛不能從軍南下留在松京余適以事往于松京遇生於館驛之中語言不同以書通情生以余解文對之甚厚余詢其致病之由愀然不答是日有雨仍與生張燈夜話生以踏沙行一闋示余……余再三諷詠其詞不置因探詞中情事生於是不敢諱從頭之尾細說如右因曰幸勿外人道也余以艷其詩詞歎奇遇而愴佳期退而援筆述之云爾)

위 인용문 역시 권필이 주생에게 들은 바를 적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후기는 唐代傳奇나 조선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작자의 부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권필이 주생 곧 蕉鳳鳴을 실제 만났을 가능성을 말하였고 또 계사년 즉 1593년 권필이 德水縣(현재 開豐郡 德水面)에 간 기록⁹⁾이 있어 권필이 실제 개성에 일이 있어 들렀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작품의 내부에서 주생이 선화와 어면 형태로든 재결합하지 못하고 조선에 와 있게 된 것으로 작품이 종결된 것 역시 고전 소설의 관습에 의숙지 못한 것이다. 차라리 주생이 조선에 와 병사했으면 그 비극적 종말로 작품이 완결되지만 주생이 전쟁으로 조선에 왔다는 대목에서 작품이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품이 여기서 종결된 것이라 간주된다. 또 주생이 科業에 실패하자 자신의 재산으로 배와 화물을 사서 상인으로 변신하는데 이 점은 권필 당대의 현실에서 있기 힘든 것이다. 주생이 배도를 만나기 위해 굳이 배로 장사를 다니다 고향인 전당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장치를 쓸 필요는 없다. 과업에 실패한 후에도 선비의 신분을 유지한 채 천하를 유람하다 전당에 이르는 것이 더욱 그럴 듯 해보이는 한국문학적 관습이다.

9) 〈家有佳木七株…〉(『석주별집』 권1)에 “癸巳夏京城平余自江都歸…秋德水歸海松又無恙”으로 되어 있어 권필이 1593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덕수에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어余는 주생의 詩詞와 사연을 기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기사 역시 사실인지가 문제이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권필은 작가가 아니라 주생, 곧 翠鳳鳴의 행적을 그대로 옮긴 것이 된다. 작품에서 여는 주생과 말이 통하지 않아 펠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사가 사실이면 작품의 기술 자체를 주생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 되고 권필은 이를 종합한 인물일 뿐이다. 그러나, 『주생전』은 권필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말미의 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앞부분은 삼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기술되다가, 후기에서는 일인칭 관찰자시점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대부분을 권필이 구성하고 끝부분에 적게 된 경위를 연결시키다 보니 시점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부분을 보자.

이날밤 주생과 배도는 高唐賦를 노래 불렀는데 두 사람이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 金生이 翠翠와, 魏郎이 媚嬌과의 재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是夜賦高唐二人相得之好 雖金生之於翠翠 魏郎之於媚嬌 未之喻也)

주생과 배도가 정사를 치루는 장면을 고당부로 대체하고 그 즐거운 마음을 당 전기의 인물인 김생, 취취, 위랑, 빙빙의 관계에 비우하였다. 이는 권필이 주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하기 위해 당대 유행 하던 전기의 인물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주생전』에 자주 등장하는 당대 전기의 고사는 주생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권필이 평소 읽었던 데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연구된 업적에 따르면¹⁰⁾ 『주생전』이 〈霍小玉傳〉과 〈鶯鶯傳〉의 영향이 많은데 이는 권필에게는 주생의 이야기가 이들 당대 전기와 자주 결부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권필이 소설로 꾸몄다고 하더라도 삽입된 시와 사가 권필의 소작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이 역시 권필의 작으로 보고 싶다. 권필의 문집에 전하는 시나 사, 『주생전』에 들어 있는 시와 사의 정조가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 예를 보인다.

『주생전』 玉窓花暖日遲遲 院靜簾垂	고운 창에 꽃 따뜻하고 해 긴데 풀은 고요하고 주렁 드리워져 있네
-----------------------	-----------------------------------------

10) 王淑誼, 앞 논문.

沙頭彩鵠依斜照	모랫벌 색깔 고운 오리 저녁 햇살 쪄며
羨一雙對浴春池	부럽게도 짹을 지어 봄 물에 먹을 감네
柳外紅烟漠	버들에 가벼운 안개 아득하고
酒中細柳綠線	안개 속에 가는 버들 실실이 푸르다
美人睡起依欄時	미인은 잠에서 깨어 난간에 의지할 때
翠竹愁眉	눈썹에 시름이 푸르게 엉긴다
燕雛解語驚聲老	제비 새끼 지저귀자 꾀꼬리 늙으니
恨韶華夢裏都衰	서럽게 좋은 시절 꿈속에 시든다
把琵琶輕弄	비파 잡고 가벼이 놀리나
曲中幽怨誰知	곡중의 깊은 원망 누가 알아 주리오

『문 집』 香風澹蕩吹綺羅
 千門碧樹驚聲多
 珠簾晝下洞房深
 美人睡覺傷春心
 起把金針刺孤鳳
 翠鬢欲墜鸞釵重
 芳華已晚君不來
 玉寂寂生青苔

향긋한 바람 휘몰아쳐 비단 옷에 불고
 천 문의 푸른 나무에 꾀꼬리 울음 많구나
 주렴은 낮언데도 드리워져 동방이 깊은데
 미인은 잠에서 깨니 춘심이 서글퍼라
 일어나 금침 잡고 외로운 봉황 수놓으니
 푸른 머리에 난새 비녀 무거워 떨어질 듯
 고운 모습 다하는데도 임금님 오지 않고
 육계는 적막해 푸른 이끼 생겨난다

『석주집』 권 2

『주생전』의 〈風入松〉은 아직情人이 없는 선화의 심정을 읊은 것이고 〈春宮詞〉는 군왕을 그리는 후궁의 노래이다. 비록 정황과 양식은 다르나 한 손에서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 의경과 구법이 유사하다. 또 『주생전』의 “琵琶莫奏相思曲 曲到高時更斷魂”은 『석주집』에 보이는 〈贈天香女伴〉(권 7)의 “……獨抱搖琴怨暮春，絃到斷時腸亦斷……”과 흡사한 구절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시적 경향의 유사성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권필이 『주생전』을 엮으며 상황에 맞게 시를 제작해 삽입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권필은 詞의 명수인 秦觀의 글을 탐독한 것으로 보이는데¹¹⁾ 진관의 사는 염정한 남녀의 애정을 담은 것이 많다. 특히 〈調笑令十首并詩〉는 王昭君, 樂昌公主, 崔徽, 無隻,

11) 『석주별집』 권1 〈偶作〉에 “我愛秦淮海 當年字太虛 一生燈火讀 強半是兵書”가 보인다.

灼灼, 盼盼 鴛鴦 등 唐 전기소설등에 등장하는 여성의 심정을 묘사한 작품인데 권필이 주생의 이야기를 소설로 꾸미고 시와 사를 쓸 때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灼灼>에서 “腸斷, 繡簾捲, 妾願身爲梁上燕”과 같은 구절은 『주생전』의 <古風>에서 “却羨花間隻燕子 任情飛入珠簾裏”로 환골탈태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진관이 서사를 사로 읊어낸 것이나 권필이 주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으면서 시와 사를 지어 넣은 것은 유사한 창작의 방식이다.

위에서 본 『주생전』의 말미부분의 기사에 따르면 『주생전』은 계사년, 즉 159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권필의 나이 26세 때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그 다음 해이고 권필이 강화도 누님댁에 피난갔다 들 아와 덕수현에 머무르던 어느 날 주생의 사연을 듣고 『주생전』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권필은 1587년 진사초시에 합격했고 복시에 장원을 차지했으나 거슬리는 글자가 있어 출방 당했으며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권필은 李安訥, 趙緯韓 등과 詩社를 조직하여 시와 술로 소일하고 세사에 큰 미련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권필의 심회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다음이 대표라 할만 하다.

朝日自何來	○-침 해 어디서 오는가
夕日向何去	저녁 해 어디로 가는가
一朝復一夕	하루 아침 또 하루 저녁
白髮遽如許	백발이 급히 오누나
少年志氣壯	어린 시절 지기가 장했고
長嘯望伊呂	장년에는 伊尹과呂尚을 노래했건만
方圓豈相謀	네모와 원이 어찌 서로 도모하리
與世實組錯	세상과 실로 어긋나기만 하는구나
始也多毀譽	처음엔 비방과 칭찬이라도 많았건만
終焉寡傳侶	나중에는 어울리는 이 죄어겼네
況逢干戈際	게다가 전쟁을 만난 이때
漂泊忍羈旅	떠돌아다니니 나그네 신세 차마 못할 것
溝壑幸而免	구렁에 굴러 떨어진단 요행히 면하나
疾病固其所	질병은 제 자리를 떠나지 않네
皎皎平生心	최디 흰 평생의 심지

壹鬱誰與語	담담해도 누구와 더 불어 말할꼬
手掇秋菊英	손으로 가을 국화 꽃잎 꺾어
願貽高丘女	고구녀에게 보내고 싶지만
佳期未易得	좋은 약속 쉬 얼을 수 없어
歲暮徒延佇	세모에 우두커니 서 있다

『석주집』 권 1

이 시는 세사와 화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읊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 대한 그리움이 매우 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가을녘 국화를 꺾어 젊은 미녀에게 주고 싶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시기 권필은 애정에 대한 갈구가 있었던 듯하다. 高丘女는 곧 巫山女로 〈高君賦〉에 전거를 두고 있다. 『주생전』에서 많은 전고를 〈고당부〉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권필의 문집에는 초기의 작품에 여성의 입을 빌어 남녀의 애정을 읊거나 직접 남성화자의 입으로 남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것이 많은 것도 젊은 권필의 심사를 짐작케 해준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白露下蒹荷	흰 이슬 갈대밭에 내리고
水國知新秋	물나라에 가을이 들을 알겠노라
天虛遠山淨	하늘은 비고 먼 산은 깨끗한데
地迥寒江流	땅은 멀고 찬 강은 흐른다
美人隔南浦	미인은 남포에 멀어져 있고
日夕令人愁	멀어지는 해 사람을 서글포게 한다.
相思屬涼夜	그리움은 서늘한 밤에 부쳐 있고
片月生西樓	조각 달 서쪽 누각에 듣는다

〈秋懷戲效李白〉『석주집』 권 1

권필의 시에서는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시에서 자주 구사되던 ‘상사’라는 구절이 남성의 친구에게 준 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권필이 쓸쓸한 가을날 자신의 남을 그리워한 애틋한 감정이 경물과 함께 잘 형상화되어 있다. 또 여러 시에서 巫山의 雲雨를 노래하고 있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권필은 『주생전』을 지을 무렵 소외의식과 고독감, 애정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던 것으로 문집에 나타나고 있다. 이때 주생으로부터 들은 애정 이야-

기는 권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주생전』의 미학적 특질—시로 읽는 소설

『주생전』은 권필이 주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주생의 시와 사를 삽입시켜 소설로 꾸민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권필이 소설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주생전』은 주생이 전당에 오게 된 경과를 서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즉 주생은 과거에 실패하고 배에 화물을 실어 강호를 떠나며 장사를 다니다가 전당에 이른다. 그 다음 한 수의 절구가 등장한다.

岳陽城外倚蘭漿	악양성 밖에서 木蘭 배에 기대었더니
一夜風吹入醉鄉	원 밤 바람 불어 취향에 들었다
杜宇數聲春月曉	접동새 몇 번 울어 봄 달이 둘았는데
忽驚身已在錢塘	흘연 이 내 몸은 전당에 있구나

이 시 역시 주생이 전당에 오게 된 경위를 적고 있다. 즉 같은 내용을 한번은 서사로 한번은 서정 양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을 한번은 서사체로 한번은 서정 양식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주생전』의 미학에 해답이 된다. 일반적으로 傳系小說이나 특히 實記類에서 발전된 소설에서 삽입시는 사건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할 때가 많다. 단적인 예로 『角干實記』에서 李公升의 〈天官寺〉는 여러 시선집에 뽑혀 있는 유명한 시인데 金廣信과 天官의 애정이 실제한 사건임을 보이기 위한 증거로 활용된 것이다. 이에 비해 『주생전』에서 삽입시는 사건의 진실성을 지향하여 서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서사적 진행을 멈추기 위해 작품에 도입되었다. 전기소설이 서사에 흥미소를 두는 것은 이미 六朝志怪類의 특징일 뿐, 당대 이후의 전기소설은 이야기 자체의 흥미보다는 이야기의 구성에 흥미를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¹²⁾ 당대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생전』 역시 이야기 자체의 흥미, 즉 서사적인 흥미보다는 이야기의 구성에 흥미를 읽을 수

12) 田野直彬, 中國小說史考(秋山書店, 1975)의 2장 六朝 唐宋의 小說 부분 참조.

있다. 『주생전』을 읽는 재미는 구성 방식에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서사양식 속에서 서정양식의 반발과 관련된다. 즉, 권필이 주생과 배도, 선화의 행적을 당대전기의 주인공에 자주 비유하고, 내용 자체가 이들 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주생전』의 재미가 이야기 자체의 회귀성에 있기 보다는 구성 방식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구성 방식을 서정화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사는 시간의 진행을 필수로 하나 서정은 정지된 시간 속의 한 장면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지닌다. 위의 삽입시는 서사적 기술에서는 오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으나 시를 읽으면 수년의 세월이 하나의 장면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악양성에서 배를 타고 잠을 자고 나니 이미 전당에 이르렀다는 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간의 경과는 서정의 내부에서는 의미를 잃고 있다. 곧 서사적 진행을 멈춘 다음 이를 정지된 장면으로 재생하여 시를 읽는 즐거움을 독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이는 詩話와도 유사하다. 어떠한 시 작품이 나오게 된 경과를 적고 시를 소개한 것이 시화의 체제인데 『주생전』에서는 사건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시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생전』은 동일한 내용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서사적으로 기술하고 나서, 정지된 시간 속에 사건을 멈춘 다음, 하나의 화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스토리 위주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서사와 서정을 아울러 즐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주생이 전당에 오게 된 경과를 적은 서사적 기술에서도 서사가 서정으로 자꾸 바뀌려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주생이 잠에서 깨어나 바라본 경치를 “잠에서 깨자 종은 내 긴 절에서 울리고 달은 서쪽에 있었다. 다만 양쪽 강언덕에는 푸른 나무 아련하고 새벽 빛은 나무 그늘 속에 푸르게 보일 뿐이었다. 때때로 초롱의 은총이 붉은 난초 푸른 발 사이에 은은히 비쳐들었다.”(及覺 則鐘鳴煙寺 而月在西矣 但見兩岸碧樹蕙蘿 曉色蒼茫 樹陰中 時有紗籠銀燭 隱映於朱欄翠箔間)이라 적고 있어 비록 서사적인 기술이나 한 편의 시를 읽는 느낌을 주어 서정성이 강화된다. 이는 <메밀꽃 필 무렵>과 같은 서정성이 농후한 작품을 읽는 재미와 상통한다 하겠고, 이른바 ‘서정소설’의 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서정소설’은 소설을 시의 기능에 접근토록 사용하는 혼성적인 양식으로 이미저리와 인물 묘사에의 서사의 역설적 침몰로 이해된다. 서정

소설은 인과 관계와 시간에 근거를 둔 하나의 장르 속에 서정적 요소를 도입시켜 순수하게 서사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은유적 연상의 영역을 넓혀 준 것으로 지적된다.¹³⁾ 이에 따르면 서구 문학의 전통에서 소설이 중심적인 장르가 되기 이전에 서정적 서사 양식이 있었던 것인데, 조선 소설사에 있어서도 『금오신화』와 같은 서정적 서사 양식이 선행했음을 볼 수 있다. 『주생전』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삽입시를 보자.

天涯芳草幾落衣	하늘가 고운 풀에 몇 번 옷을 쳐셨던가
萬里歸來事事非	만리에서 돌아오는 길 일마다 그릇되었구나
依舊杜秋聲價在	옛날처럼 두추의 성가 남아 있는데
小樓珠箔捲斜暉	작은 누각 구슬 발에 저녁 햇살 감기니

이 시는 주생이 배도를 처음 만나 준 시이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과업에 실패하고 강호를 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형상화하였다. 특히 첫구는 蘇軾의 詞 〈蝶戀花〉에 보이는 “天涯何處無芳草”에서 따온 것으로 시의 작자가 사에까지 능통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芳草’나 ‘珠箔’ 등의 시어는 권필의 문집에 실린 시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구이기도 하다. 杜秋는 唐의 유명한 기생으로 시에 능했던 인물이다. 여기서 권필은 배도의 전형성을 과거의 인물에 비의하는 수법을 쓰고 있음이 주목된다. 앞에서 미리 본 배도와 주생의 정사에서 배도를 취취나 빙빙을 통해 유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물 전형의 방식은 고전 소설에 일반적인 것이다. 그 한 예로 〈九雲夢〉의 등장 인물인 楊少游를 楊凝으로, 賈春雲을 賈充 등으로 연결시키고 畫像을 걸들여 〈九雲樓〉로 개편했다는 기록을 들 수 있다.¹⁴⁾ 등장 인물의 전형을 과거

13) 웰프 프리우드만 저. 신동욱 역, 서정소설론(현대문학, 1989) 1장에 서정 소설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14) 金進洙의 『碧蘆集』 권 1 〈燕京雜詠〉 중에 “九雲夢幻九雲樓”라는 구절이 보이고 그 주에 ‘我東小說九雲夢 增演已意 如楊少游系以楊凝 賈春雲系以賈充 他皆倣此 皆寫像於卷首 如聖歎四大書 著為十冊 改名曰 九雲樓 自序曰 余官南省也 於舟中得見九雲夢 卽朝鮮人所撰也 事有可采 而朝鮮不編於稗官野史之書 故改撰云’이라는 주목되는 기록이 보여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구운몽』이 『구운루』로 개찬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인물에 부회합으로써 오히려 추상적인 의모의 묘사나 재능의 진술보다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배도는 두추, 빙빙, 취취, 앵앵 등 의 인물에 포개어져 그려짐으로써 그 시재나 미모가 훌륭히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로 권필은 미처 묘사하지 못한 배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은 누각 구슬 주렴 속에 햇살이 비치는 것으로 그 미모를 강화하고 있다. 주생의 인물 전형의 방식 역시 이와 같다. 즉 배도가 〈蝶戀花〉를 초하자 완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생이 이를 완성 시켜준 사에서 “誤入蓬萊十二島 誰識樊川 却得尋芳草”라 하여 스스로를 樊川 곳, 杜牧에 비하고 있다. 이는 주생의 시재가 뛰어남을 말하는 동시에 두목처럼 유명한 오입쟁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사에서 방초는 배도를 비유하고 있는데, 위에서 “天涯芳草幾靄衣”라 했을 때의 방초와 다시 연결된다. 즉, 주생이 배로 강호를 유람할 때 여성 편력이 심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이처럼 서정 양식을 서사양식 속에 삽입하여 인물의 전형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순수한 서사만으로 획득할 수 없는 비유적 연상의 영역을 통해 『주생전』의 미학이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배도는 주생이 준 시를 보고 주생의 능력이 뛰어남을 인식하고 그에게 몸을 의탁하고자 생각한다. 이 때 주생의 시는 배도의 감식안에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주생의 시가 일반 독자의 감식안에도 뛰어난 작품이 되어야 한다. 주생의 이 시는 杜甫의 시풍을 절로 풍기고 있어 방랑의 비애가 경물의 묘사와 함께 훌륭히 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독자는 서사를 따라 읽다가 일단 이 시를 읽고, 소설의 문맥을 떠나 작품 그 자체로 감흥을 받게 된다. 즉 전술한 대로 서사적 진행성에 역행한 정지된 서정적 분위기를 독자는 즐기게 된다. 전기 소설의 한 특성이 여기서 발현된다. 『금오신화』나 『大觀齋夢遊錄』에서 등장 인물이 각기 능력에 상응하는 시가 있어야 소설 전체의 의미가 갖추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이 시는 다시 서사적 문맥 속에서 배도에 대한 구애의 시로 읽히게 된다. 배도가 주생의 시로 주생의 능력을 인정하였으면 이제는 배도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권필은 이 장치를 위해 역시 배도의 시를 삽입하고 있다. 물론 배도가 즉각 회답하는 형식을 빌기보다는 이미

배도의 집에 다음과 같은 배도의 시가 벽에 적혀있는 것으로 꾸미고 있다.

琵琶莫奏相思曲	비파로 상사곡 타지를 마소
曲到高時更斷魂	곡 높아질 때 애 또한 끊어진다니
花影滿簾人寂寂	꽃 그늘 밤에 가득 사람없어 접(Point)적한데
春來消却幾黃昏	좋은 봄 그 몇 밤을 그냥 보냈나

이 시는 전술한 바의 권필의 〈春宮詞〉와 유사한 작품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은 조선 문인의 문집에 古樂府題를 모의한 작품이나, 李商隱의 〈無題〉 시에 연원을 두고 지어진 일련의 염정한 애정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문집의 애정시는 남성 시인이 여성화자의 입을 빌어 비극적 연정을 말하는 전통을 유지하여 현실적 애정의 감정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주생전』에 삽입되어 있는 이 작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생과 배도의 미묘한 애정 탐색의 과정에서 배도가 주생을 유혹하는 시로 읽히게 된다. 즉 시에서 배도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하게 표출하여 주생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그러면서도 배도의 시 역시 주생의 시와 함께 작품 그 자체로 수작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배도의 인물 전형화의 과정에서 빙빙, 취취, 두추, 앵앵 등의 시로 유명한 기생과 일치시키고 있음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실제 배도의 시작이 대단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염정한 풍경을 유지하면서도 기구에서 톤을 높여 지나친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배도의 성격이 상당히 의지적임을 이 시에서 미리 읽히도록 배려되고 있는 것이다.

주생은 “이미 그 얼굴을 좋아하고 또 그 시를 보니 감정이 미혹되고 만 가지 생각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주생은 배도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때 주생이 배도의 방으로 무단 침입하는 서사적 기술에서 “月色滿地 花影扶疏”한 밤에 “紗窓裏絳燭熒煌”한 배도의 방을 엿보니 배도는 彩雲箋을 펼치고 〈蝶戀花〉를 초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배경의 묘사가 한편의 시를 읽는 것과 같은 서정 양식으로 물입캐 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어 주생은 ‘狂客’이 되어 배도의 방으로 예견된 대로 들어 가고, 배도가 초한 〈접연화〉를 완성시켜준다.

小院沈沈春意闊	작은 뜰 깊디깊고 봄 뜻은 가득한데
月在花枝	달은 꽃 가지에 있고
寶鴨香烟裊	보암 향 향연은 간드러지네
窓裏玉人愁欲老	창안의 미인은 근심에 늙어가고
遙遙斷夢迷花草	아득히 끊어지는 꿈 화초에 어지럽다
誤入蓬萊十二島	잘못 봉래산 선경에 들어
誰識樊川	누가 알리오 杜牧이
却得尋芳草	문득 방초를 찾게 될 줄을

앞 부분에서는 배도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생이 배도의 마음이 이리하지 않느냐는 일종의 질문을 던진 것이다. 두번째 구까지는 봄날의 고운 경치와 여기에 대비되는 님을 기다리는 배도의 고독을 형상화하였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주생이 배도와 가연을 맺고 싶다는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표출하였다. 배도가 벽에 써둔 시를 보고 다시 주생이 화답하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이러한 전개는 시의 이면에 대한 의미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시로만 연결되면 문맥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기에 정황을 간략히 소개해 둘 뿐이다. 곧 주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권필이 그 정황에 맞는 시를 삽입해 넣음으로써 한 편의 시로 읽는 소설이 되게 한 것이다.

인물간의 결연에 이와 같은 구성 원리를 차용함은 주생이 다시 선화와 결연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주생이 배도 몰래 선화를 보러 가다가 垂虹橋에 한 편의 시를 제한다.

柳外平湖湖上樓	버들 너머 평호 호수위 누각
朱甃碧瓦照青春	붉고 푸른 기와에 푸른 봄이 비쳤다
香風吹送笑語聲	향긋한 바람은 웃음 소리 날려 보내나
隔花不見樓中人	꽃에 가려 누각 안에 사람은 보이지 않네
却羨花間雙燕子	부러워라 꽃 사이 쌍쌍 제비는
任情飛入珠簾裏	뜻대로 주렴 속에 날아드는데
徘徊美人踏歸路	미인을 기웃대다 돌아오는 길
落照纖波添客思	낙조에 가녀린 물결 나그네 근심 더한다

이 시는 주생이 선화의 집 근처에 배회하며 지은 것인데 1구와 2구에서 선화의 집 근처의 경물을 화려하게 묘사한 다음, 3구와 4구에서 선

화의 집에 대한 동경을 바람에 실려 선화의 집에서 풍겨나온 향내를 맡을 수는 있지만 꽃에 가려 실상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말하였다. 이어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쌍쌍이 나는 제비를 등장시켜 선화를 만나고 싶은 심정을 표출한 다음, 하릴없이 돌아 나오는 자신의 무거운 발걸음과 낙조에 비친 가녀린 물결로 자신의 시름을 말하였다. 애정의 갈등이라는 단순한 주생의 애틋한 심리묘사는 서사적인 기술로는 오히려 합당치 못하다. 전기 소설에 잣게 삽입시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미묘한 감정의 묘사를 위한 것이 많다. 주생이 선화를 만나고 싶어 암달이 났다는 서사문으로는 전기소설의 묘미를 느끼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배도를 통해 듣는 선화의 사〈風入松〉 역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玉窓花暖日遲遲	고운 창에 꽃 따뜻하고 해 진데
院靜簾垂	뜰은 고요하고 주렴 드리워져 있네
沙頭彩鴟依斜照	모랫벌 색깔 고운 오리 저녁 햇살 쬐며
羨一雙對浴春池	부럽게도 짹을 지어 봄 못에 덕을 강네
柳外輕烟漠	버들에 가벼운 안개 아득하고
烟中細柳線線	안개 속에 가는 버들 실실이 푸르다
美人睡起依欄時	미인은 잠에서 깨어 난간에 의지 할 때
翠斂愁眉	눈썹에 시름이 푸르게 엉겼다
燕雛解語鶯聲老	제비 새끼 지저귀자 괴꼬리 늙으니
恨韶華夢裏都衰	서럽게 좋은 시절 꿈속에 시든다
把琵琶輕弄	비파 잡고 가벼이 놀리나
曲中幽怨誰知	곡중의 깊은 원망 누가 알아 주리오

이 詞는 주생이 선화의 집을 배회하면서 지은 시와 짹을 이룬다. 즉 주생이 자신을 제비에 비유해서 선화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리를 묘사했다면 선화는 물오리 한쌍이 노님을 보고 짹을 짓고 싶은 심리를 경물 묘사만으로 암시하고 있다. 마치 배도의 집에 적혀 있던 시와 동질적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뒷부분은 이를 이어 조금 더 강렬하게 세월이 헛되이 흐르는데 임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하였다. 여기서 스스로를 미인이라 함으로써 삼인칭으로 자신의 심경을 표출하였다. 이는 여인의 비극적 연정을 노래한 애정시의 전통에 기대어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려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객관화하게 된 것이다. 아

름다운 인연을 원하는 이 시가 있기 때문에 주생이 배도의 집으로 침입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선화에게 애정의 공격을 감행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주생은 선화의 방으로 침입하는데 이 침입이 정당한 것으로 되기 위해 다시 한 편의 시가 필요하다. 이 때 권필은 蘇軾의 〈賀新郎詞〉를 선화의 입을 통해 읊조리게 하는데 제목이 시사하듯이 선화는 이미 주생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앞의 〈風入松〉과 함께 넘지 말하고 있다. 선화가 읊고 있던 〈하신랑사〉의 구절 “주렴밖에 누가 와서 수놓은 문 두드리고 요대의 곡을 꿈에서 깨게 하는가? 이는 바람이 대를 두드리는 소리일세”(簾外誰來推繡戶 看教人夢斷瑤臺曲 又却是風鼓竹)라는 대목을 받아 주생은 “바람이 대를 울린다 하지 마소, 이 곧 옥인이 온 것일세”(莫言風動竹 直是玉人來)라고 하여 시재로써 다시 선화의 허락을 얻어낸다. 마치 주생이 배도와 가연을 맺을 때 서로써 흥금을 턴 것과 같은 방식의 반복이다. 이로써 두 사람은 깊은 정을 나누게 된다. 이처럼 주생은 시를 통해 배도, 선화와 각기 가연을 맺고 있어 이 작품에서 시와 사는 애정의 심리 묘사뿐만 아니라 애정 결합에 필수적인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받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애정에 관계된 미묘한 감정의 처리로 서사적 필치보다는 서정적 양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와 사가 자주 구사됨을 위에서 보았는데 이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선화가 주생의 보따리에 들어 있는 애정시를 몰래 넣어 사랑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주생이 선화의 집에 머무르면서 선화와 애정을 나누다가 배도에게 발각될까 우려하여 잠시 배도의 집으로 돌아간 사이 선화는 주생의 보따리에 들어 있던 배도가 주생에게 준 시를 박박 지우고 자신의 시를 지어 넣는다.

窗外疏影明復流	창밖에 성진 그림자 어른거리고
斜月在高樓	비낀 달 높은 누각에 있는데
一階竹韻	온 섬틀에 대 소리
滿堂梧影	집 가득한 오동 그림자
夜靜人愁	밤은 고요하여 시름에 잠겼다
此時蕩子無消息	이때 바람둥이 소식이 없으니
何處作閑遊	어느 곳에서 한가이 노니는고

也應不念	생각 말자 잊으려 하건만
離情脈脈	이별의 정 끝이 없어
坐數更籌	우두커니 시계소리만 해아린다

〈眼兒眉詞〉라는 이 詞는 전반부에서 유려한 펠치로 고독을 그려내었고, 다시 후반부에서 바람둥이 情人을 애써 기다리는 여인의 정을 리드 미 칼하게 형상화하였다. 詞의 특성에 어울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달빛과 대소리가 어우러진 밤 비극적 연정을 노래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 주생이 떠난 선화 자신 도습을 삽인칭 시점으로 그려낸 것이나, 이로 인한 선화의 심리를 일인칭 시점으로 묘사한 것은 서사로써는 대체되기 어렵다.

이와 유사하게 남녀가 情事を 벌이는 흥겨움은 직접 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문학 작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광경은 권필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닌 宋玉의 〈高唐賦〉에서 끌어들이고 있다. 〈고당부〉는 잘 알려진 대로 남녀의 雲雨之情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권필의 시는 〈고당부〉에서 많은 전고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절은 권필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로 읽는 소설이라는 전기소설의 특징은 또한 산문적 진술에 있어서도 묘사의 시적 형상화로 인해 서사적 흐름이 자주 차단되어 시간의 경과가 장면의 교체로 읽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권필은 삽입시와 함께 찾은 『詩經』 구절을 교묘히 인물의 대화에 끼워넣음으로써 『시경』 구절의 斷章取義의 교묘함을 과시하고, 그 이면에 배도와 주생, 선화 등의 주요 등장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기도 한다. 다음의 대화를 보자.

“시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고 남자는 행실을 따로 한다고. 낭군은 李益과 霍小玉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까? 낭군이 만약 저를 버리지 않겠다면 넝세의 말을 주십시오.”

이에 좋은 비단 일침을 내어 주생에게 주니, 주생은 주시 붓을 날려 써나갔다.

“푸른 산은 늙지 않고 푸른 나무는 길이 있으니 그대 나를 밀지 않는다면 명월이 하늘에 있으리.”

여기서 배도는 『시경』 衛風 埴篇을 인용하고 있는데 毛詩序에는 “氓

은 때를 풍자한 것이다. 宣公 때에 예의가 없어지고 음란한 풍속이 크게 일어 남녀의 구별이 없어져 마침내 서로 유혹하게 되었다. 얼굴빛이 쇠미하면 서로 저버리고 어떤 이가 스스로 그 짹을 버린 것을 후회하여 이 때문에 이 일을 먼저 序하여 풍자하였다”고 하였고, 권필이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朱子集注에는 “음란한 부인이 버림을 받고 그 일을 기술하여 후회한 뜻을 말한 것이다.”고 하고 있는데 권필은 이를 단장취의하여 자신은 변함이 없겠지만 주생의 변심을 우려하는 뜻으로 빌어썼다. 이로 인해 『시경』 본래의 뜻과 약간 방향을 달리하여 『주생전』에 에 기워넣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시경』 원시와 이 대목의 의미를 비교하여 음미하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당대 소설 『곽소옥전』의 인물로 변심의 일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주생전』의 줄거리 자체가 『곽소옥전』과 유사하기도 하겠지만 도리어 이를 통해 두 편의 소설을 독자로 하여금 비교하여 고찰토록 한다. 주생은 이에 대해 맹서의 글을 쓰게 되는데 배도가 시경의 구절을 끌어들인 것과 통하도록 四言의 시경체로 글을 써준다. 앞 두 구절은 산과 나무를 먼저 비유로 끌어들이고 뒤 두 구에서 자신의 맹서를 적는 전개를 보이고 있어 시경에서 자주 구사되는 風의 수사를 차용하고 있다. 구법의 측면에서도 시경투가 물씬 풍기고 있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배도와의 대화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생과 선화의 대화에서는 더욱 이러한 성격이 강화되어 이들의 대화 대부분이 『시경』의 구절에서 단장취의한 것이기도 하다. 선화는 배도처럼 자신을 버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況郎犯折櫟之譏妾受行露之辱”, “必如郎言 桃夭灼灼 繼乏宜家之德 采蘋祁祁 庶盡奉祭之誠” 등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시경』 중에서 남녀의 문제를 옮고 있는 시의 구절구절을 염다시피 한것이다. 사실 『주생전』에서 대부분의 대화가 구어체로 되지 않고 문어체로 되어 있으며 그것도 변려문과 유사한 호흡을 보이고 있어 권필이 시와 사 뿐만 아니라 산문적 기술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대화에서도 이처럼 시간의 경과를 필수로 하는 서사의 틀을 지키기보다는 서정적 분위기로 작품을 몰아가는 것이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이 점은 『주생전』에 들어 있는 두 편의 편지와 배도의 죽음에 대한 주생의 祭文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먼저 제문은 한문학 양식의 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배도에 대한 추념을 읊고 있다. 제문이 운문으로 되는 것이 관례이듯이 이 제문 역시 四言을 기저로 한 운문으로 되어 있고, 일반 제문보다 더욱 서정 양식에 근접해 있다. “비취새 수놓은 이 불 아직 따뜻해지기도 전에 원앙처럼 즐길 꿈이 먼저 사그려졌네. 구름처럼 즐거운 뜻 사라지고 비처럼 은혜로운 정 흩어졌네. 눈에 마주치는 비단 치마 색이 바랬고 눈에 접하는 옥페 소리 들리지 않네. 일척의 편지에만 향기가 아직 남아 있구나.”(裴翠之衾未暖 鴛鴦之夢先回 雲消歡意雨散恩情 觸目而羅裙變色 接耳而玉珮無聲 一尺魯縞 尚有餘香)의 대목은 韻이 없는 시라 할 만하다. 사랑하던 사람에 대한 상실감이 화려한 수식에 대비되어 애간장을 끓게 한다. 『주생전』의 비극적 성격은 이 제문 자체가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 자체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다. 또 선화와 주고 받은 한 편지의 편지 역시 산문의 영역에 있으나 四言과 六言을 교체한 시적 산문이다. “비단 장막 비었으니 낮 인데도 적적하고 은 촛대 불이 꺼져 밤 더욱 침침하다. 하루 아침 몸을 망치고 백년에 정을 품게 되었네. 조각 달 눈동자에 엉긴다.”(錦帳空今
晝寂寂 銀缸滅今夜沈沈 一日誤身 百年含情 殘花貯思 片月凝眸)라고 한 선화의 편지는 서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4. 저작의 의도와 그 의미—결론을 대신하여

위에서 『주생전』의 미학적 특질을 알아 보았다. 서사적 진행에 시와 사를 교체시켜 서사적 문맥 속에서 서정적 장면화가 이루어짐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미학적 특질은 사실 『주생전』 만의 것은 아니다. 『금오신화』나 『운영전』, 『영영전』 등의 전기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는 『주생전』과 권필의 의식을 중심으로 창작의 의도와 그 의미를 살펴도록 하겠다. 권필이 『주생전』을 쓰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주생, 곧 루봉명으로부터 재미난 소재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주생전』의 미학적 특질을 살펴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생전』은 시로 씌어진 소설이다. 따라서 『주생전』의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서 시를 짓는 재미를 맛보기 위해 저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 사대부는 시로 교양을 삼았지만 모든 소재를 다 시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주생전』에 삽입되어 있는 시와 사와 같은 애정시는 당대의 통념으로 쉽게 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정시를 쓰기 위해 조선조 사대부가 쓸 수 있는 장치로는 의고시가 있었다. 의고시는 과거의 문인이 남긴 악부체를 모의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가면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애정시가 남성시인에 의해 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화자의 입을 비는 것은 시의 관습이기도 하겠지만¹⁵⁾ 그만큼 완벽한 가면을 쓰는 셈이 된다. 앞에서 예로 든 〈춘궁사〉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확인된다. 또 조선 후기 남녀의 애정을 읊고 있는 사설시조가 양반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논하면서 양반이 여성이나 천민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고 한 것은¹⁶⁾ 여성화자의 입을 빙 의고악부의 논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의고시만으로 애정시를 쓰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의고시는 원제에 충실했던 정조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폭 이내에서 애정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녀의 실제적 애정 상황에서 시를 써 보이는 것은 자신의 애듯한 감정을 충분히 노래하기 어렵다. 부부간의 애정을 노래한 시가 작품이 그 자체로 드물지만 남아 있는 최소한의 자료에도 애정의 실상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三宜堂集』의 시는 부부간의 애정을 노래한 드문 자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남편에 대한 권력의 말로 채워져 있을 뿐 직접 사랑의 기쁨이나 슬픔은 감쇄되어 있다. 오히려 애정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의고시의 정조와 구법을 따르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이 그 예이다.

門前種楊柳	문 앞에 벼들을 심었더니
柳可鞭 行人長逝去	벼들은 채찍에 맞아 길가는 이 영영 가버리네
不惜楊柳枝	벼들 가지 아깝지 않지만
生憎別離苦	이별의 아픔 정말 싫어라
其下嘶白馬	그 아래 백마는 우는데
郎欲向何處	임은 어디로 가시는지

15) 참고, 〈成倪 擬古詩 研究〉에서 한국 애정시의 의고적 관습을 밝혔다.

16) 정학성, 〈텍스트의 실현 양상으로 본 사설시조의 담당층〉(한국고전문학연구회 동계 발표회 발표요지, 1991. 2)

長安隔鬱外 서울은 구름 밖에 떨어져 있고
 相送乍延行 임 보내고 문득 우두커니 서 있다

金三宜堂은 남편이 서울로 떠나게 되자 이별하면서 다섯 수의 시를 지어 남편에게 주는데 앞의 두 수는 남편에 대한 권력의 말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세 수는 남편을 보내고 겪어야 할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위 시에서 보듯이 벼들과 백마, 장안과 같은 고시의 관용어구를 빌고, 구법 역시 악부체로 쓰고 있어 사랑의 진술한 감정은 의고성을 가면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소설로 구여진 상황에서의 애정시는 비록 실제 애정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대리 경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조금더 실제에 가까운 애정의 감정을 형상화할 수 있게 된다. 고악부를 模擬하면서 길러진 애정시의 관습을 활용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는 시를 끼워 넣음으로써 애정시의 본령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기소설이 애정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기소설의 애정시는 산문적 기술의 배려 속에 수작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으로 전기소설은 뛰어난 문인이어야 제작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삽입시 자체가 수작이 아니면 소설의 형상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선 후기에 자주 보이는 애정을 다룬 야담이 소설적 형상화에 미치지 못하고 奇談에 머물고 마는 것은 그에 맞는 뛰어난 시를 쓰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選諺篇』에 보이는 趙生과 농가집 처녀와의 결연담은 이야기 자체의 흥미에 의존하지, 삽입시 자체의 우수성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에 시가 한 편 나오는데, 여장하고 만난 처녀와 동침을 하기 전에 양인의 꿈에서 같은 시를 보았기 때문에 초면 인데도 雲雨之情을 나눌 수 있었다¹⁷⁾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곧 이야-

17) 『選諺篇』은 기존에 소개된 야담집에 나오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만 이 한 편은 다른 곳에 보이지 않는다. 작품의 양이 방대하거나와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솜씨가 소설의 그것에 가깝다. 『선언편』의 성격은 근간 예정인 서대석 편저, 『朝鮮朝文獻說話輯要』(一)(집문당, 1991)에 소개되어 있다. 개요는 아래와 같다. 조생이 외가에 갔다 오다 객점 근처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한 처녀를 만나는데 매우 아름다웠다. 그날 밤에 조생은 주점에 들었다가 여자의 집으로 가 사모의 정을 말하고 정을 통하는데 깨어 보니 꿈이

기 자체의 흥미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작품에서는 삽입시가 작품의 종 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전기소설은 이에 비해 결연의 과정에서부터 애정의 갈등에 대한 심리 묘사, 애정을 나누는 기쁨 등 미묘한 감정의 묘사에 서정 양식인 시나 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 때 전기소설을 읽는 재미는 산문으로 서사를 진행시키는 한편, 끊임없이 서정 양식을 삽입시켜 서사적 진행을 멀추고 정지된 시간 속에 등장 인물의 심리를 하나의 장면으로 독자에게 제시하는 미학을 담지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전기소설의 작자는 뛰어난 시재를 바탕으로 소설적 허구 속에서 자신의 문학적 정열을 불태울 수 있고, 다시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사문을 창작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었다. 이에 안달이 난 조생은 주모를 졸라 여장을 하고 그 여자의 집에 가 서로 놀다가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는 옷을 벗고 한 침상에 자다가 뒤늦게 조생이 남자임을 알고 당황하였다. 조생이 통정을 요구하나, 여자는 거절하다가 서로가 같은 꿈을 꾸고 시를 주고 받았음을 알고 동침을 허락하였다. 조생은 결혼을 약속하고 본가로 돌아 왔으나 문벌의 차이로 차마 부모께 말하지 못하여 상사병에 걸린다. 이제 부친의 친구가 이를 알고 처녀의 집에 가 처녀가 죽었음을 알리고 후히 장사치를 돈을 준 다음 아무도 몰래 처녀를 서울로 데려와 자신의 양녀로 삼아 조생과의 결연을 이루어 준다. 이후 부인은 지혜로 남편을 성공시킨다.